시론

이광열 목사
마조교회

십자가를 생각하며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는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굳은 땅을 뚫고 생명이 움터 올라오는 모습이며, 마른 가지에 움이 돋아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무며, 농부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계절의 신비로움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로움이 빈틈없이 연결되어 가는 모습인 것이다.

봄에는 또 하나의 생명력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 일은 놀라운 일이며, 신비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다. 이 부활의 근본이 죽음을 부른 십자가인 것이다.

봄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다.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명령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는 도구였다.

엡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는 죄의 몸을 죽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었다.

마 16:21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고난과 죽음이라도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었다.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일과 나음의 은혜를 제공해 주신 위대한 은혜의 수단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다. 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와 고전 6: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리시는 능력인 것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방편이었다.

눅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십자가는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의 꽃을 피운 도구였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고난과 고통의 형틀이었으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였으며, 부활을 만든 기초였고, 인류 구원의 자랑스러운 도구임을 생각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가리라.

칼럼

'동정'에서 '공존'으로

안현자 목사
안산실로암교회

어느 주일 예배 후, 한 시각장애인 권사님께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혼자 교회를 오가며 느끼는 길이 마치 "산을 넘고 또 넘는 것 같다"는 고백이었다. 집에서 교회까지 잡고 올 수 있는 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비장애인에게는 쉽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수고를 요구하는 길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

올해로 시각장애인 선교를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다. 궂은 날씨에는 성도들이 적게 나오실 것이라 짐작하지만, 그 예상은 늘 빗나간다. 비와 바람을 뚫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 앞에서 오히려 나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워진다.

'앞이 보이지 않아 불행할 것'이라는 편견은 시각장애인의 역동적인 삶을 지워 버린다. 그들은 점자, 스크린 판독기, 안내견 등을 통해 우리와 같은 일상을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장애'가 아니라, 점자 블록 위의 불법 주차나 음성 안내가 없는 키오스크, 볼라드 등 그들이 마주하는 '장벽'이다.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완전 실명(전맹)은 아니다. 빛이나 형체를 감지할 수 있는 저시력자가 많으므로, 개인별 시각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잔존시력 및 디지털 접근성과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파트너이다. 보행 중일 때는 만지거나 간식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장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주하는 환경에 있다."라는 말처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명확하다.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짚고 거리에 나섰을 때,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우' 대신 주체적인 존재임을 뜻하는 '장애인'을,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시각장애인의 세계는 아둠이 아니라, 소리와 촉각, 그리고 남다른 통찰로 채워진 또 다른 빛의 세계이다. 그 세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저는 ○○○입니다",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우리의 다정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상황별로 시각장애인의 안내법을 몇 가지만이라도 숙지해 보자. 택시를 탈 때는 왼손은 차체에, 오른손은 차문에 닿게 해주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은 5천원 권 1장과 천원 권 3장, 8천 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물건이나 거스름돈을 전할 때 직접 손에 건네준다. 식사할 때는 젓가락을 쥔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반찬이 놓여 있는 그릇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시계 방향의 위치로 설명해 준다. 처음 만났을 때, 첫인사는 악수와 함께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 준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함께 건너가시겠습니까?"라는 친절한 말 한마디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팔꿈치를 살짝 내밀어 준다. 등을 밀거나 흰 지팡이 또는 옷자락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시각장애인을 보면 몇 번 버스를 타는지 물어보자. 의자에 앉을 때는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책상에 닿게 해주면 바르게 앉을 수 있다. 컵이나 칼 등을 전달할 때도 안전한 부분을 시각장애인으로 향하게 하여 손잡이에 손을 닿도록 해 준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점검하는 거울과 같다. 특히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정을 넘어, '다르게 보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시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겉모습, 재력, 신체적 조건으로 판단한다. 정작 중요한 영혼의 빛은 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 시각장애인 성도들은 육신의 눈이 가려진 대신,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분들이다. 누가 진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보는 자들이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내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판단으로 돕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자. 천국에는 장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장애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이번 장애인 날을 기점으로, 교회가 그들에게 안전한 지팡이가 되고, 그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영적인 눈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社說

식탁 공동체(共同體)와 성찬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한 모임을 공동체(共同體: a community; a communal society)라고 하는데, 이는 '생활이나 행동,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말한다. 이 단체는 공동체 의식(community spirit)으로 하나가 된다. 기독교는 식탁공동체이다. 식탁공동체는 섬김과 나눔과 친교의 장소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교회요, 신령한 몸이요, 몸의 지체들의 모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집이다(엡 2:22). 사람에게는 먹는 즐거움이 있다. 육신의 음식은 건강과 능력을, 마음의 양식은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영의 양식은 영원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이처럼 식탁공동체는 생명을 위한 양식에 참여함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중에 가정은 혈연공동체이다. 가정은 혈연으로 만들어진 식탁공동체이다.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를 식구(食口)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인 밥, 양식, 식량, 음식은 구성원들에게 영양과 건강과 생명의 유지, 성장, 능력을 제공하게 된다. 식탁공동체가 가정과 민족, 사회와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요, 신앙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요, 부활의 언약이라고 하셨고(요 6:51,56-57),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니(요 6:63), 초대교회는 식탁공동체였다(행 2:42, 46).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죄 사함과 영생의 양식(피와 살)임을 증거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생선을 잡수셨다(요 21:12-14).

신앙적 식탁공동체는 구약의 유월절에 참여함에 의미가 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여하다'라는 용어인 헬라어는 '메테코(metecho)'인데, 이 단어는 '메타(함께)'와 '네코(가지다)'의 합성어로서 '함께하다, 참여하다, 공유하다(고전 10:17)'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코이노네오(koinoneo)'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성찬에 참여하다, 공동체적 나눔'이라는 의미로 '교제, 참여,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데, 이는 신학적, 또는 공동체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여한다는 것은 '소통, 교제, 교통(communicate, communication)하라'는 뜻으로, '나누다, 분배하다(Share)'라고도 한다.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만찬을 통해 증거된다.

식탁공동체에서는 밥을 먹을 때에 배가 고파서 먹고 마심은 본능적 삶이다. 짐승은 식욕, 먹기 위해 사는, 먹고자 하는 욕구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반면에 사람은 밥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 먹는 존재이다. 여기에는 교제와 친교를 통한 관계 개선과 증진을 위한 기회와 기능으로 밥을 함께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나 영적 양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식탁이다. 이를 아가페 테블(Agape dining Table), 사랑의 식탁(食卓)이라고 한다. 그렇다. 모여서 밥만 먹는 사람은 배를 채우는 것이요, 교제의 밥을 먹는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회복하고 쌓아가는 감사이다. 또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신은 예배요, 경배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식탁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식탁의 은혜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과 거룩한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 행 인 홍사진 **사 장** 김종현 **편 집 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수 **인 쇄 인** 배성한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 1-29 총회회관)
대 표 전 화 070-7132-0091~5 **홈 페 이 지** www.sknews.org
광고 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 · 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 (주식회사 성결신문사)

제58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 개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장로회전국연합회와 지방회장로회연합회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지방회장로회 주관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2026. 4. 18.(토) 오전 11시
장 소 참좋은교회(부천지방회)
부천시 석천로 211
주 최 장로회전국연합회
주 관 부천지방회 장로회연합회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이 천 장로
신수동교회

부천지방회 장로회 회장

김승철 장로
수찬양교회

설 교

박용철 목사
참좋은교회

축 도

박병두 목사
부천지방회장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장로회전국연합회